

# 해외노동연구기관

## 소개

### 스웨덴 국립노동생활연구소

##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NIWL)

국립노동생활연구소(NIWL)는 1995년 설립된 노동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설립 목적은 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좋은 노동생활, ② 노동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축적에 기여하는 것으로, 6가지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산업보건, 노동시장, 작업조직, 인간공학과 스트레스, 물리·화학적 건강위해환경, 사회통합과 발전이며, 이 외에도 노동생활의 다양한 이슈들과 동향에 관한 학제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노동생활연구소(NIWL)는 이론과 실생활, 연구자와 노동자와의 만남과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각들이 실질적 발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을 연구소의 중요한 할 일이라고 여기고, 사회적 파트너들, 기업, 대학, 국외의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활동을 벌이고 있다.

### 국제협력

국립노동생활연구소(NIWL)는 다국적 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제경쟁이 소규모 기업에도 새로운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세계적 환경에 노동생활 연구의 국가 중추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년간 북유럽의 4개 국가와 'NIVA'(Nordic Institute for Advanced Training in Occupational Health and

#### <편집자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은 200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IRA 2003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의 사무국으로 2001년부터 이를 준비해 오고 있다. 회의 기간 중 특별 세션으로 '세계노동포럼'이 열리며, 세계 주요 노동관련 연구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이번 호부터 '세계노동포럼'에 참여의사를 밝힌 주요 해외연구기관을 소개한다. 이번 호는 스웨덴의 국립노동생활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Working Life) 편이다.

other Work Life Matters: <http://www.niva.org/>)를 공동 운영하고 노동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있고, 1995년 스웨덴이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EU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연구원들이 EU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삶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럽 재단’(<http://www.eurofound.eu.int>)과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유럽직업안전보건청’(<http://agency.osha.eu.int/>) 등과 활발한 연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스웨덴 주요 노총(LO, TCO, SACO)과 공동으로 SALTSA 라는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럽 차원의 노동생활 이슈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기구(Sida)의 지원으

로 개도국의 전문가들을 위해 직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고, 중앙유럽과 동유럽 기관들과의 협력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노동연구원과 달리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산업보건위원회(ICOH) 등의 국제기구들과도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이슈들과 관련 연구 프로그램

국립노동생활연구소(NIWL)의 연구는 장기적 연구와 지식축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근 노동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진다. 연구원의 6개 상설 연구팀에서 장기적

#### <6개 분야 상설연구팀>

연구팀	연구 초점	주제들
노동시장과 노동조직	스웨덴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인 노동력 부족 타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노동시장과 조직에서의 유연성 증가의 요구가 개인, 조직 그리고 노동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EU법이 스웨덴 노동시장과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개발절차 연구	기업활동과 노동생활의 변화의 이면에 관한 연구	- 노동조직 개선의 원인 - 사회통합과정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과 보건	작업장에서의 보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 현상으로 불리해진 노동자그룹에 관한 연구	- 병가결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 건전한 인사관리제도가 갖춰진 콜센터의 특성 - 헤어디자이너들의 습진을 최소화 하는 방안
노동과 물리적 환경	비건강 상태를 유발·확산시키는 원인을 찾기 위한 비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화학적 요인 연구	- 다양한 노동환경에서의 소음 측정 - 화학물질 자아진단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 방편 마련 - 휴대폰 사용과 발암가능성 - 진동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산업과 인적자원	각종 재해와 건강 위해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과정이나 방안 마련을 위한 인간, 기술, 조직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생산시스템의 형성이나 노동시간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 - 건설산업과 농업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 인간공학적으로 안전한 자동차 좌석 배치
사회복지와 노동	사회복지와 교육분야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조직모델 개발을 목표로 교육, 보건 및 기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노동조건에 대한 연구	-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 노동자들이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는 노동환경 조사 - 청년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

지식 축적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고, 여러 연구팀에 소속된 다양한 배경의

연구원들이 단기적 연구를 위해 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다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노동생활연구소(NIWL)에서는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연구 목표마다 3~6년 정도로 기간을 제한해 두고 연구 프로그램을 재결성하곤 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이 상설연구팀의 장기적 지식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상호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지금 11개 노동생활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00년에 노동관련 여러 단체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현실과의 연관성을 잃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초점은 유지하면서 주제는 유연하게 변하기도 한다.

### <2002년~2006년까지의 11개 단기 연구 프로그램>

- 위험한 환경에서의 산업보건 및 안전 관리
- 기업조직과 지속가능한 노동시스템
- 노동생활에서의 건강과 유연성
- 노동조직과 참여
- 집약적 정보통신기술 경영활동
-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 노동생활의 차별 완화
- 지역개발
- 학교에서의 노동생활
- 이행기에 있는 스웨덴 모델
- 지속가능한 노동능력